

협회소식\_kira news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 FIKA(한국건축  
단체연합) 대표회장 취임**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이 지난 3월 5일(금) 우리 협회와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건축가협회로 구성된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우리 협회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날 취임식은 건축3단체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한 건축계의 원로들과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제2대 김진균 FIKA 대표회장의 이임사와 이세훈 FIKA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사, 윤석우 공동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신임 이세훈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FIKA를 중심으로 건축3단체의 협력, 공조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여 우리 건축인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세계화 실현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회장은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으로서 1년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FIKA 창립 때부터 현재 활동에 있어서 많은 공헌

을 한 황인일 제1대 FIKA 대표회장을 비롯한 이의구(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정재철(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진균(현 대한건축학회 회장), 오기수(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5인에게 회장패가 수여됐다.

**제38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6일 우리 협회 강당에서 개최, 대의원 368명 참석



우리 협회 제38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6일(목)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368명의 대의원이 참석, 본 협회 역대 고문들을 비롯한 김진균 대한건축학회 회장, 윤석우 한국건축가협회장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하여 오전 10시 개회를 시작으로 최근 협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본 협회 이세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경기침체 속에 건축사사무소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수립,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법과 제도를 개편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이제 부더라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과 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김진균 대한건축학회 회장, 윤석우 한국 건축가협회 회장의 축사와 함께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편,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기 전 대의원들의 의견제기로 제1호의안 '감사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이 추가 상정되었으며, 총 8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처리가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50분부터 재개한 회의는 상정된 8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오후 4시 경 회의를 모두 끝마쳤다. 이날 정기총회 부의안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감사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

회장은 대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를 원만하게 처리, 감사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문서를 취하, 서울건축사회 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은 철회

▶ 제 2호의 안 : 2003년도 회관건축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 3호의 안 : 2003년도 기금관리운용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 4호의 안 : 2004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기금에 대해서는 (가칭)기금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 제 5호의 안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회관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당초계획(85억원)보다 10%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함.

▶ 제 6호의 안 : 윤리규약 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 7호의 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정회원 회비를 5년 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을 제명하기로 함.

▶ 제 8호의 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7인) : 회장과 고문이 협의하여 선임키로 위임함.

감사(1인) : 강산(부산) 회원

### 200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오는 5월 9일(일)

2004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9일(일)에 시행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4월 20일(화)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3월 22(월)일부터 27일(토)까지 본 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에서 이뤄진다. 합격 예정자 발표는 5월 19(수) 있을 예정이다.

### 건축 및 건축사 제도개선 간담회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3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건설교통부 건축과장과 담당관 등 10여명과 우리협회 송수구 부회장의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및 건축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건축사제도 개선 방향'으로 우리협회 이관영이사는 '새로운 건축환경과 건축Profession(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권장기준으로 UIA 권장기준을 채택할 것과 등록위원회 설립, 신설 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적·물적 지원, 시험



간담회 광경

관련 및 신설기구 관련 법규 마련 등 '건축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서 주제발표 내용은 정부가 건축사자격인증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원칙적인 방향과 기본사항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건축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갱신 등 건축사자격관리제도에 대해 국가간 상호인증에 대비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이 제시됐다.

제2주제는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으로 우리협회 법제도개선기획단 이종정 위원장은 폭설피해를 비롯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소규모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및 절차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건축신고대상의 지속적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건축인허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접근은 환경파괴와 국토보존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집이 이 땅에 서야 한다는 캠페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건축문화와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사의 자긍심, 도덕적 재무장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건축사의 자격 및 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연수교육), 자격갱신, 등록기준 등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는 '사전도서검토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폐지시켰던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축 및 건축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리협회는 간담회를 정리화하자고 제의하고 건설교통부 건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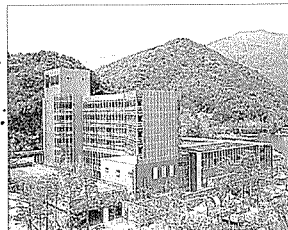
## 건축계소식\_ archi-net

### 건축가협회, 제46회 정기총회

제26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시상  
24대 회장에 윤석우(종합건축) 당선

(사)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3일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기수(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회장 후임으로 윤석우(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부회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에는 변용 (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연구부회장에는 박항섭(경원대학교 교수), 사업부회장에는 방철린(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부회장에는 조성중(일건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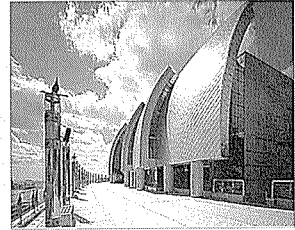
사무소)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 날 있었던 제26회 건축가협회상에는 거제문화예술회관(장석웅/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교원비전센터(조남호+박종수+양원모/솔토건축사사무소), 대구학생문화센터(변용+장응재/원도시건축+권태식/합동건축), 림스코스모치과(임재용/건축사사무소 O.C.A), 백담사 만해마을(김개천/이도건축), 아트레온(박영건+김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안양천사유치원(이민+손진/이손건축)이 선정됐다. 특별상으로 엄덕문건축상에는 피넬브러(김헌/어사이럼건축), 아천건축상에는 김종영미술관(류재은+한철수/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초평건축상에는 서상우(국민대 명예교수,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회장)씨가 각각 선정,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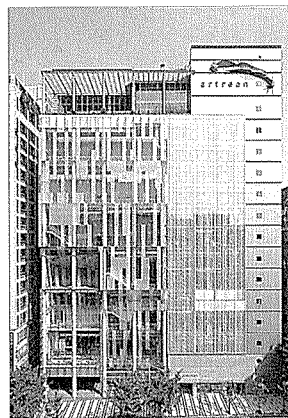
조남호+박종수+양원모 / 교원비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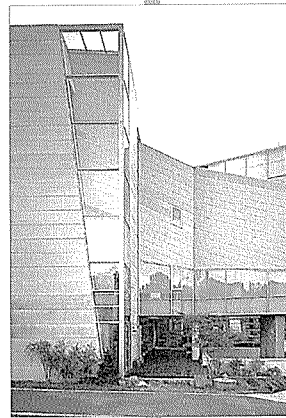
김개천 / 백담사 만해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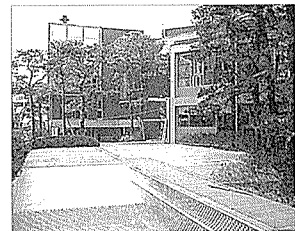
장석웅 / 거제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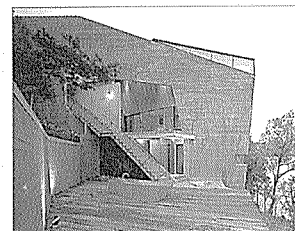
박영건+김준성 / 아트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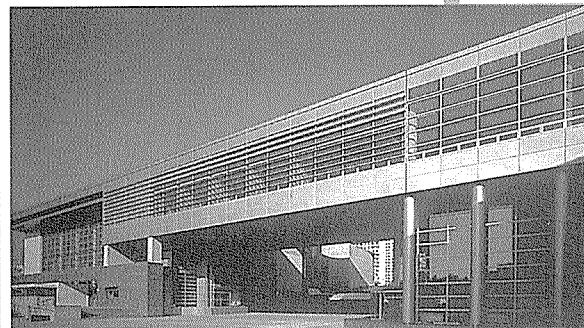
임재용 / 림스 코스모 치과



이민+손진 / 안양 천사유치원



엄덕문건축상 수상작 / 김헌 / 피넬브러



변용+장응재+권태식 / 대구학생문화센터



아천건축상 수상작 / 류재은+한철수 / 김종영 미술관

### 본 협회 회관 이전

서초동 동아타워빌딩 2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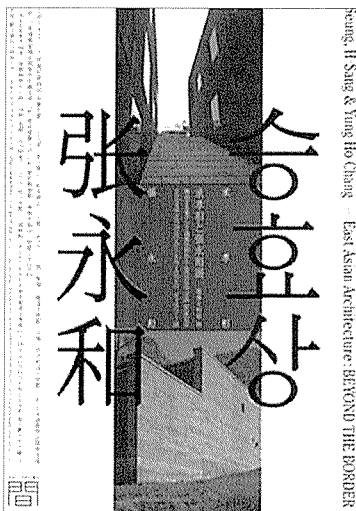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회관신축에 따라 이전한다. 이전건물은 주상복합빌딩 19층 건물이며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본 협회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포럼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 ▶ 이전일 : 2004. 3. 27~2004. 3. 28 (2일간)
- ▶ 이전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 ▶ 전화번호 : 02)581-5711~4,  
FAX : 02)586-8823(전과 동일)

## 승효상+張永和, 일본 갤러리 마 초청전시

5월 1일까지 일본 동경 갤러리 마에서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회원이 북경의 장영화와 함께 일본 동경의 갤러리 마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일본 TOTO주식회사의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갤러리 마 초청전시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전시회로 그동안 이토 토요, 다카마츠 신, 안도 타다오 등의 일본 건축가 외에 프랭크 게리, 렌조 피아노, 헬무트 얀, 램쿨하스, 다니엘 리베스킨트, 베르나르 추미 등이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의 코디네이터는 무라마츠 신이 맡았다.



## 감리협회, 새 회장 최종철 씨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철(중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씨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 겸 신임 토목협회회장에 조행래 극동엔지니어링 사장을, 건축협회회장에 김인수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 민건협 2004 봄 강좌

민건협에서는 '모호한 성격의 도시 그리고 재생'을 주제로 봄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0강좌로 진행한다.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개발의 양태를 고찰해 보고, 지워져가는 도시의 흔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생할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민예총 아카데미 02-739-6851

- 3월 27일: 모호한 성격의 장소(Terrain Vague)
- 4월 3일: 도심개발 프로젝트, 재개발 개념의 변화(필라델피아)
- 4월 10일: 역사적 모습과 함께 변화하는 도시(베로나)
- 4월 17일: 건축재생의 지혜(LA의 지역주의 건축)
- 4월 24일: 답사
- 5월 1일: 사막에서 꿈의 공장(캘리포니아)
- 5월 8일: 장소의 기억을 담는 건축
- 5월 15일: 기억과 재생의 건축(철암)
- 5월 22일: 기억과 장소의 복원(선유도)
- 5월 29일: 기존 도시의 재정비와 건축의 방향

##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3회 김태수 해외 건축 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국내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포트

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고, 예선 당선자에 한해 여행목적 및 계획을 받아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최종 1명이 선발된다.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문의: 02-569-1536 www.tskaf.org

## 한양대 건축대학원 국제건축스튜디오 개최

한양대 건축대학원 국제스튜디오의 제5차 워크숍이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다. 4개국 5개 대학(Ecole d'Architecture de Paris-La Villette/ Politecnico di Milano/ Tsinghua University/ Universita Fedrico II di Napoli/ Hanyang University)에서 온 10명의 교수와 58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강연회(16일 10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답사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스튜디오의 설계 주제는 '도심 속 과거와 현재의 전위공간으로서의 현대미술관'으로 경복궁과 마주한 국군통합병원 대지에 미술관을 계획하고 주변의 복원과 조화되는 도시계획 모델을 연구하게 된다.

## 리모델링페어 2004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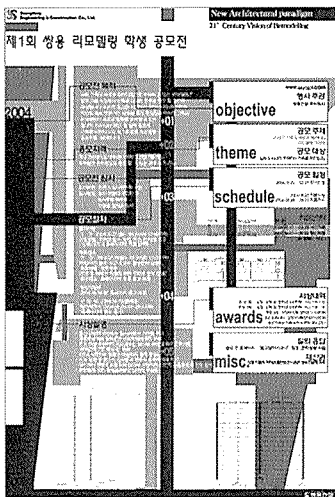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코렘시스, CA현대건축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리모델링페어2004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리모델링이 단순한 보수, 공사의 개념을 벗어나 자재에서 디자인, 첨단설비에 이르기까지 종합화된 공간재창조의 의미를 갖게된 만큼, 전시장 구성을 Covering Show?Interior Design Show·Frontier Home & Building Show 등의 3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업체간 협력, 구매상담을 지원하여 참가업체가 리모델링 전문기업으로서 관련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711-4546

## 제1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요강이 발표되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향후 건설 시장에서 신축과 더불어 큰 축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미래 건축을 책임질 예비 전문가의 현실 참여 의식 고취와 리모델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응모자격: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 (2인 1팀 가능)
- 참가신청: 2004. 3. 22~31. 오후 5시 인터넷, 우편, 팩스
- 작품접수: 2004. 7. 26~30. 오후 5시 방문 제출
- 당선작 발표: 2004. 8. 16.
- 시상식: 2004. 8. 20.
- 문의: 홈페이지 [www.ssyapt.com](http://www.ssyapt.com)



## 제7회 강구조 건축물 설계공모전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제7회 강구조 건축물 설계공모전'의 요강이 발표됐다. '지역성을 고려한 Community Center'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환경친화

적 소재인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물 건설을 유도하고, 철강재의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가신청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작품 제출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다.

문의: [www.steelcon.or.kr](http://www.steelcon.or.kr)

## 재미있는 우리집 - 어린이 디자인체험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과 씨알드림이 공동으로 어린이 디자인체험전을 개최한다. 어린이날 전후 40일간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재미있는 우리집'이라는 제목으로 디자인체험 전시물과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시기획은 유성자 씨가 맡았으며, 건축가 서혜림 씨가 전시장을 디자인한다.

문의: 02-580-1539

[www.designgallery.or.kr](http://www.designgallery.or.kr)

## 건교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 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자료에 반영키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9일자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로서 건교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통보하였다.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보수 관련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와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서로 달라 설계보수를 적용에 혼선을 빚어왔을 뿐 아니라 건축사들로서는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 성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나아가서는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조차 불가능하였던 실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본 협회와 본 협회 회원사인 (주)한인건축(대표 이관영, 본 협회이사)이 관계

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꾸준한 건의와 호소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문화재 실측설계를 겸하고 있는 (주)한인건축에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설계보수대가기준이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성실한 문화재 보존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에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채택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예산편성지침의 참고자료로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기획예산처에 정부예산지침서상의 건축설계용역비도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 '02. 10. 1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운용에 따른 혼란이 있으므로 건축사업대가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회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설계비의 현실화에 보다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000소장을 000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